

전주 배경 웹툰으로 중국 관광객 유치

시, 중국 대표 웹툰 플랫폼 '콰이칸'에 '전주 이씨네 게스트하우스' 연재·매력 홍보

전주시가 전주의 매력을 담은 웹툰으로 중국 MZ세대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시는 지난 6일부터 매주 수요일 전체 사용자 3억4000명, 하루 5000만 명이 이용하는 중국 유명 웹툰 플랫폼 '콰이칸(快看)'에 웹툰 '전주 이씨네 게스트하우스'를 총 10회 연재한다고 7일 밝혔다.



전주시는 지난 6일부터 매주 수요일 전체 사용자 3억4000명, 하루 500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중국 유명 웹툰 플랫폼 '콰이칸(快看)'에 웹툰 '전주 이씨네 게스트하우스'를 총 10회 연재한다. (사진은 포스터)

이 한국 남주인공을 만나면서 벌어지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시는 이 웹툰을 통해 전주의 관광명소와 음식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선보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국인이 가장 방문하고 싶은 한국 여행지가 될 수 있도록 전주의 매력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부터 샤오홍슈, 시나 웨이보 등 중국 MZ세대들이 주로 이용하는 플랫폼을 통해 전주 관광웹툰 사전홍보를 하고, 중국 검색 포털사이트 소후망과 뉴스채널 봉황망 등에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서배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글로벌 관광거점도시 전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관광자원들을 다양한 형식으로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중국의 MZ 세대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주로 이용하는 웹툰을 통해 전주의 관광명소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지속적인 해외 관광 마케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소리의 고장 전주의 여름밤 풍패지관(전주객사)에서 울려 퍼졌던 흥겨운 조선팝 선율이 7월에는 전북혁신도시 기지제에서 이어진다.

“흥겨운 조선팝 선율을 즐겨요”

전주시, 30일까지 매주 토요일 기지제서 상설공연

소리의 고장 전주의 여름밤 풍패지관(전주객사)에서 울려 퍼졌던 흥겨운 조선팝 선율이 7월에는 전북혁신도시 기지제에서 이어진다.

전주시는 지난달 11일부터 매주 토요일 풍패지관에서 펼쳐졌던 '조선팝 상설공연'이 오는 9일부터 30일까지는 기지제 수변공원 야외무대로 장소를 옮겨 진행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전통 가락에 대중음악을 접목한 '조선팝'을 코로나19 일상회복에 발맞춰 시민과 관광객들이 보다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지역 조선팝 예술가들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거리 공연 형태의 상설공연으로 진행한다.

조선팝 상설공연에는 지난 5월 공개모집으로 선발된 조선팝 예술가 10팀이 참여하고 있다. 한 주에 3팀씩 각각의 다채로운 공연을 펼치고 있다.

9일 진행되는 공연에는 △국은예 애드 △문화포럼 나니네 △이희정 밴드가 주말을 맞아 기지제 수변

공원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조선팝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30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30분에 시작되는 조선팝 상설공연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현장에 방문하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유튜브 채널 '조선팝TV'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공연을 즐길 수 있다.

시는 조선팝 상설공연에 이어 오는 8월과 10월에는 '2022 전주 조선팝 페스티벌'도 개최할 예정이다.

전주시 관광거점도시추진단 관계자는 "풍패지관에서 진행된 조선팝 상설공연에는 매회 전주시민과 여행객이 열띤 호응으로 조선팝 예술가와 같이 호흡하는 정을 연출했다"면서 "전주의 다양한 장소에서 펼쳐지는 매력적인 조선팝 공연을 보면서 더운 여름 일상의 활력과 위안을 느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덕진구, 폭염 대비 촘촘한 안전망 구축

무더위 쉼터 운영·그늘막 설치 등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최현창)는 무더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폭염대비 시민안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사업 내용은 △무더위 쉼터 326개소 운영 △그늘막 설치 △삼수차 운영 △식중독 취약시설 특별점검 등이다.

구는 무더위에 취약한 노인들을 위해 경로당 217개소, 관공서 17개소 등에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에는 필터 세척, 냉매가

스 등을 지원한다.

혹서기(7~8월)에는 노인 사회활동 지원 시간을 주민센터별로 기존 월 30시간에서 월 20시간 이내로 단축적으로 조정·운영토록 하는 한편, 폭염대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풀토시와 모자 등을 지원한다. 건강지킴이를 활용해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안부전화나 수시방문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구는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이 잠시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주요 보행지역

122곳에 그늘막을 설치한 가운데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보행지역 및 교통 취약계층이 폐적한 보행할 수 있도록 전동시차 인건 등에도 그늘막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구는 폭염 특보가 발령될 때에는 살수차 4대를 1개소로 투입해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살수 작업을 실시해 도심 온도를 낮추기로 했다.

이에 앞서 구는 지난달 배달업 등록 음식점 1464개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한 특별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김밥과 회를 취급

하는 음식점 111개소에 대해서는 식중독 예방 진단 컨설팅을 했다. 이달 중에는 어린이집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한 식중독 예방 점검을 할 예정이다.

최현창 덕진구청장은 "올해는 예년보다 더위가 빨리 시작돼 무더위 취약계층인 노인이나 아이들 등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 "현장 행정을 통해 재난 취약계층의 생활 상태를 파악하고, 폭염에 대비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신산업융복합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추가 모집

전주시는 오는 28일까지 노송동 소재 신산업융복합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해 지역 디지털 융합산업을 함께 키워나갈 기업을 추가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전주 신산업융복합 지식산업센터에는 현재 ICT 신산업분야 관련 17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이번 추가 모집은 31개의 입주공간 중 비어 있는 10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모집 대상은 △SW/HW 개발·제조 △사물인터넷(IoT) 등 온라인플랫폼 △블록체인 △인공지능(AI) △가상현실(XR) 등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거나 계획이 있는 우수 ICT 분야 기업이다. 지역 제한은 없다.

기업 입주는 오는 9월부터 가능하며, 임대 계약 기간은 기본 2년에 평가 후 2년 단위로 총 3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입주 희망 기업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누리집(www.jica.or.kr)에서 내려 받은 입주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동시에 전자우편(jy@jica.or.kr) 제출도 필요하며, 입주부담금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산업기반지원팀(063-281-4166, 4165)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제12대 전주시의회 이기동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은 7일 첫 공식일정으로 교동의 군경묘지를 찾아 헌화와 분향으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

제12대 전주시의회, 군경묘지 참배로 의정활동 시작

이기동 의장 “시민의 뜻 받드는 의정활동 펼쳐겠다”

제12대 전주시의회가 군경묘지 참배로 의정활동 시작을 알렸다.

이기동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은 7일 첫 공식일정으로 교동의 군경묘지를 찾아 헌화와

분향으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

의장단은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다짐했다. 이날 이기동 의장은 “호국영령의 나라

사랑에 대한 정신을 이어 시민의 뜻을 받드는 의정활동을 펼쳐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의회는 지난 4~6일 12대 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꾸렸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덕진구, 출·퇴근 정체구간 도로 확장공사 나서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최현창)가 출·퇴근길 상습정체가 빈번한 도로의 폭을 넓힌다.

덕진구는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통해 추천로와 가리내로, 반룡로 등 상습정체 구간 도로망이 조만간 확장 개통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구는 총사업비 164억 원을 투입해 서

곡광장에서 추천대교까지 추천로 1371m 구간을 폭 20m로 조성하는 추천로 개설공사를 하고 있다.

관련 부서 합동점검 등 막바지 작업을 거친 후 안전·교통시설 등을 보완한 후 이달 말 확장된 추천로를 전면 개통할 예정이다.

해마다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출·퇴근 시간 상습정체 현상이 발생하는 가

리내로(덕진동 명성강변아파트~사평교) 확장공사도 막바지 단계다. 구는 가리내로 303m 구간에 총사업비 58억 원을 투입해 양복 3차로를 양복 4차로로 확장하고 있다.

올 연말까지 총 42억 원이 투입되는 반룡로 개설공사를 통해 여의동 태평마을 인근의 열악한 간선도로망도 확충한다. 철단산업단지에서 전주공공교

통학교까지 497m 구간에 폭 15m의 도로가 개설되면 인근 주민과 근로자들의 교통편의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현창 시 덕진구청장은 “구는 오는 2022년 말까지 관내 도로개설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교통 혼잡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면서 “도시 가로망 확충을 통해 지역발전 및 전주시 주요 간선도로와 연계된 기반시설 확충에 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7일 학대피해노인의 자살 예방 및 심리지원 등을 위해 전라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과 상호 연계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학대피해노인 심리지원 협력 업무협약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전라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7일 학대피해노인의 자살 예방 및 심리지원을 위해 전라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과 상호 연계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 내 학대피해노인의 자살과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상담·교육·홍보 사업을 위해 상호협력하고, 노인학대 의심 사례 발견 시에는 의뢰 또는 개입하는 등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 학대 신고는 지난 2019년 5243건에서 2020년 6259건으로 19.4% 증가하는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노인 학대에는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외에도 재정적 학대와 방임·유기 등도 포함된다.

김보영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노인 학대는 사회적 사각지대에서 발생하기 쉽고, 관심이 없다면 노출되기 어렵다”면서 “학대피해노인의 개입

을 위해 노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미소 전라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장은 “노인 학대는 더 이상 가정 내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라며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 등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학대피해 어르신 개입을 위해 양 기관의 업무협약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건강한 사회 만들기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정신질환 인식개선 및 권익증진, 생명존중 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자살 및 정신건강과 관련한 상담은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063-273-6905~6)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